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2022년 11월 22일(화)

이른아침예배

인도 : 최유진 목사

예배를 여는 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88장 다 같 이
 기 도 박 성 원 2
 성 경 봉 독 욥기 23장 8-10절 인 도 자
 찬 양 주님께 가까이 함이 새벽찬양대
 설 교 『새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옵니다』 최유진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496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욥기 23:8-10>

8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
 시나 뵈올 수 없구나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
 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고구절

<욥기 23:2-3>

2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
 보다 무거움이라
 3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로마서 4:18-19, 21>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
 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8:24-25>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
 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1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2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3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뵈기 원하네

후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496장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1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2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3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후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 담당

11/22(화)	11/23(수)	11/24(목)	11/25(금)	11/26(토)	11/28(월)
박성원2 재적안수집사	유창근 안수집사	소형석 안수집사	김근홍 재적안수집사	정호성2 안수집사	박윤일 안수집사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2년 11월 22일(화)

빛이신 하나님! 두렵고 막막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오늘 하루, 한 순간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회뿐인 어제, 회피하고 싶은 오늘, 알 수 없는 내일까지도, 결국 주님께서 허락하신 단련의 시간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새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온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의 빛이신 하나님! 한국교회 어머니교회로 맡은 바 사명을, 어둔 세상에 진리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제직들에게 영혼이 잘 됨과 범사의 잘 됨과 강건을 주시고(요삼 1:2), 새문안의 다음세대들을 믿음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어르신들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군 복무와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 이 나라에 어두운 곳, 부서진 곳, 무너진 곳, 냄새 나는 곳, 썩은 곳에 회복을 주시고,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복음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터널도 주님 손을 붙잡고 한걸음 걷다 보면 반드시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가운데 있는 희생자들의 가족들,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 위에 회복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